

2014년 4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I. 세계 태양광시장 동향	1
II.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11
III. 태양광 주요 기업 실적 동향	16
IV. 시사점 및 결론	19

확인 : 팀	장 이윤관 (3779-5710) lyk@koreaexim.go.kr
--------	------------------------------------------

작성 : 선임연구원 강정화 (3779-5327) nicekang@koreaexim.go.kr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

< 요약 >

□ 2014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47GW로 기존 예상 전망치인 45~50GW에 부합

- 2014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시장 성장률은 전년 대비 16% 증가
- 2014년 하반기에 불어닥친 유가하락은 태양광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으나, 현재까지는 영향력이 제한적
 - 2014년 4분기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여,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저유가에 따른 매출 감소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 2015년 세계 태양광 수요 전망은 최소 52GW에서 최대 58GW에 달할 전망

- 2015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전년대비 약 15% 이상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일본 및 미국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며,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태양광 수요도 감소하지 않을 전망
- 세계 태양광시장 성장세는 2016년까지 지속될 전망

□ 주요 지역별 태양광시장을 살펴보면 중국 15GW, 일본 12GW, 미국 8GW가 설치될 전망

- 2015년 유망 태양광시장을 살펴보면 영국(3GW), 인도(2.6GW)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
- 미국 태양광시장의 경우 세금공제제도(ITC) 연장 문제가 이슈로 2015년부터 연장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세금공제제도가 연장될 경우 2017년 미국 태양광 수요는 12.9GW, 연장이 안될 경우 5.8GW로 수요가 감소할 전망

□ 폴리실리콘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으로 태양광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

- 폴리실리콘 수요량은 55GW를 기준으로 약 260,000톤이며, 여기에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수요 30,000톤을 포함할 경우 2015년 예상 폴리실리콘 수요량은 290,000톤
- 2015년 약 60,000톤 정도의 폴리실리콘이 공급과잉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밴드는 \$15~20/kg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

-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은 충분한 상황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은 상향보다는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까지 매출 및 영업실적이 악화됐던 태양광 기업들의 2014년 실적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태양광 선도 모듈 기업들의 영업실적은 2014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중국, 미국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 매출 증가율이 크게 개선됨.

□ 2015년 긍정적인 시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차별화 양상을 보일 전망

- 2015년 세계 태양광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인해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은 2014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매출 및 이익 개선 효과는 가격경쟁력 및 마케팅 능력이 우수한 선도기업에 집중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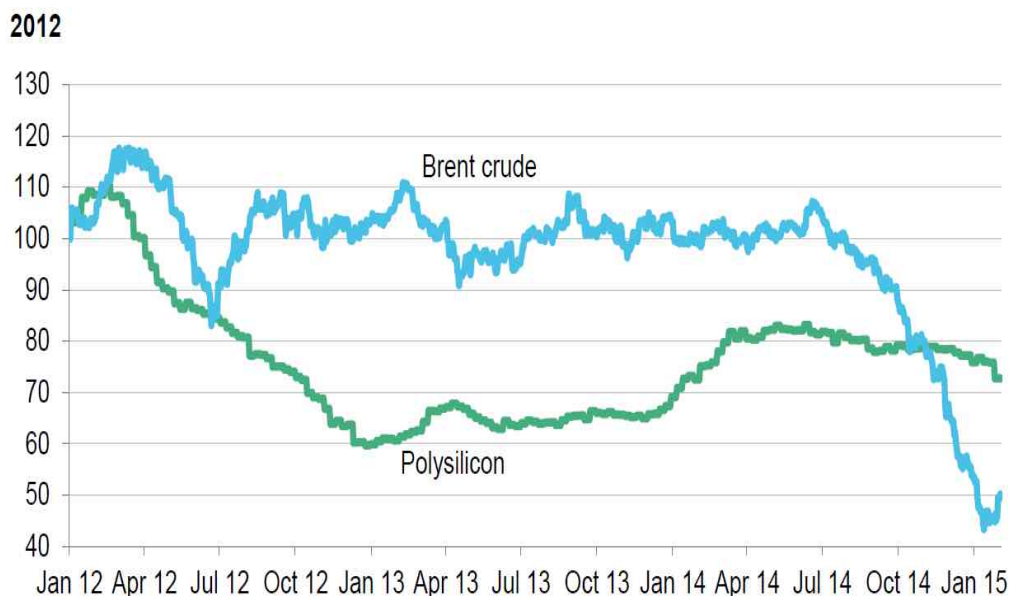
I. 세계 태양광시장 동향

1. 세계 태양광시장 현황

□ 2014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47GW로 기존 예상 전망치인 45~50GW에 부합

- 2014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시장 성장률은 전년대비 16% 증가
- 2014년 태양광 수요 상위 수요국을 살펴보면 중국 13GW, 일본 10GW, 미국 6.3GW, 영국 2.1GW, 독일 1.9GW 순
- 2014년 하반기에 불어닥친 유가하락은 태양광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으나, 현재까지는 영향력이 제한적
- 2014년 4분기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여,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저유가에 따른 매출 감소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 태양광 수요의 바로미터인 폴리실리콘 가격도 유가하락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

<브렌트유와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관관계>



자료 : New Energy F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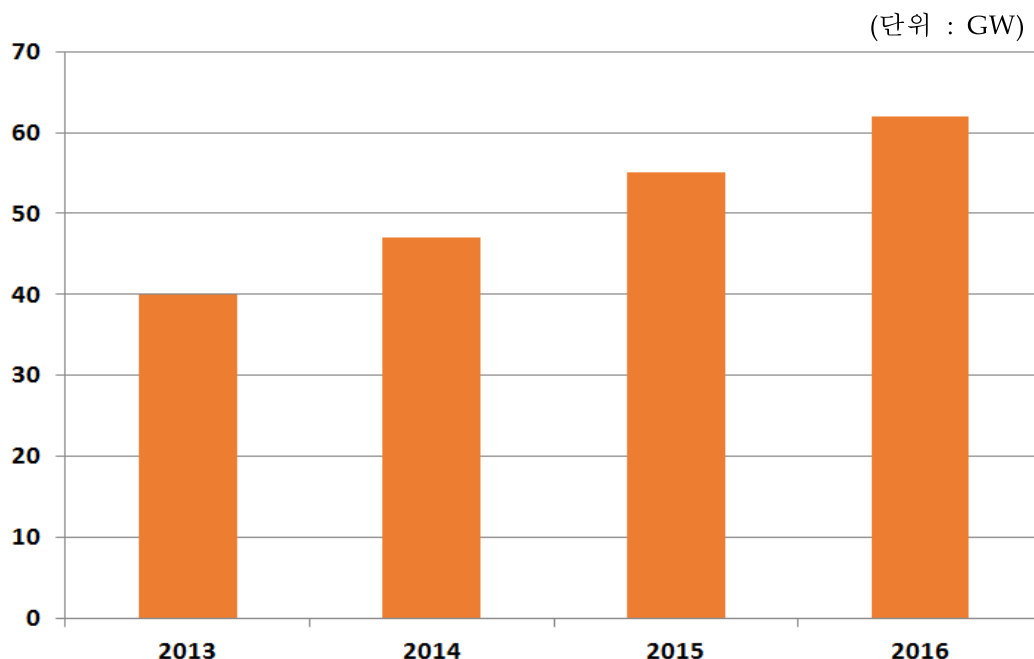
주 : 2012년 브렌트유와 폴리실리콘 가격을 100으로 한 가격 변동폭

2. 세계 태양광시장 전망

□ 2015년 세계 태양광 수요 전망은 최소 52GW에서 최대 58GW에 달할 전망

- 2015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전년대비 약 15% 이상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일본, 및 미국의 수요가 여전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태양광시장 성장세는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세계 태양광 수요는 60GW를 넘어설 전망
- 세계 태양광시장의 수요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태양광 발전단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진국들의 화석에너지 사용 억제 및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은 저유가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
 - 2014년 기준 미국 태양광산업에서 종사자는 170,000명이며, 2014년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 수는 31,000개로 태양광산업은 고용효과가 큰 산업으로 각국 정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육성은 지속될 전망

<세계 태양광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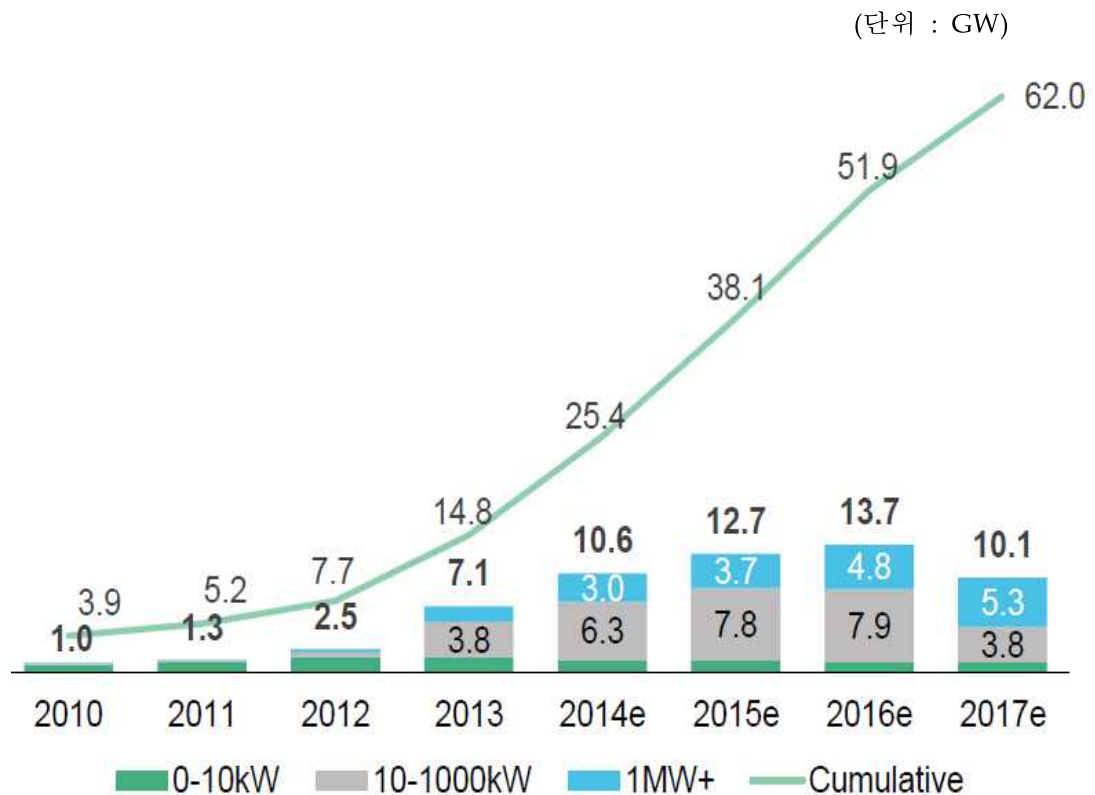
3. 주요 지역별 시장전망

가. 일본

□ 2015년 일본 태양광 설치량은 10~13GW에 달할 전망

- 2014년 일본 태양광 설치량은 10GW가 설치되었으며, 올해 발전차액지원 금액 삭감이 예정되어 있지만 설치량은 10GW를 넘어설 전망
 - 2015년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23.5억 달러이며, 이 중 90% 이상이 태양광산업에 지원될 전망
- 2015년 10kW 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발전차액 지원금액은 전년대비 10% 삭감된 \$0.24/kWh이며, 가정용 태양광 발전지원금액은 4% 삭감된 \$0.3/kWh가 지원될 예정

<일본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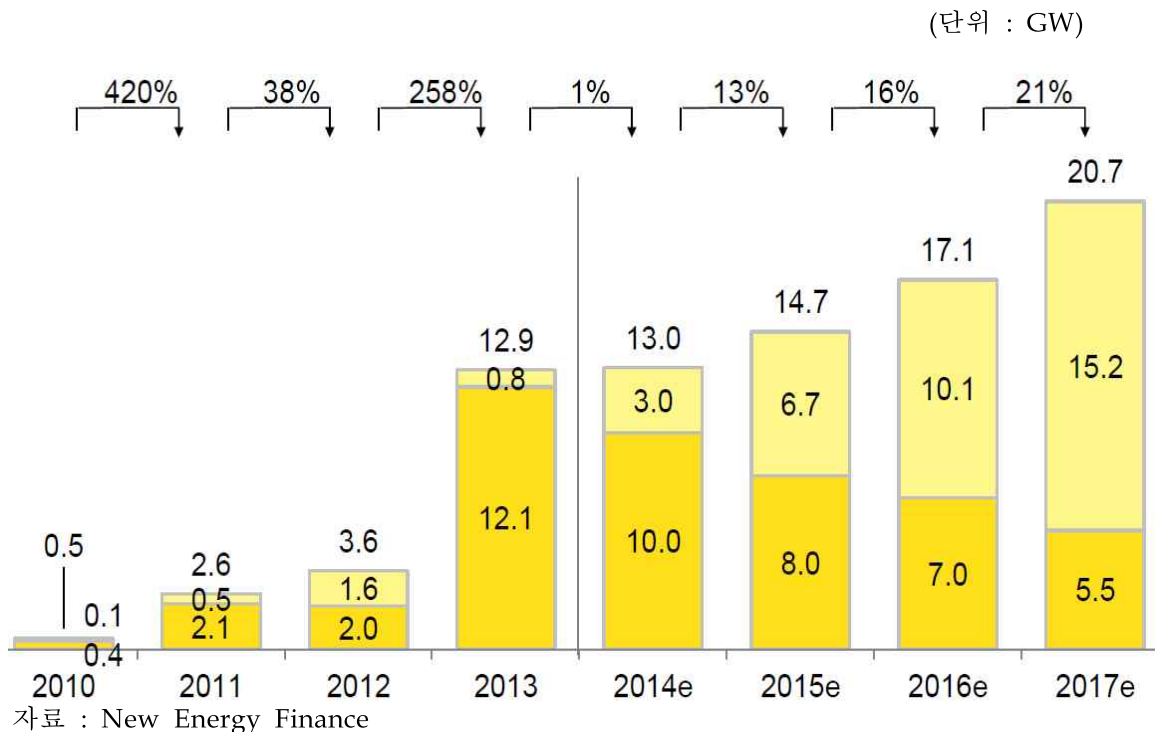
자료 : New Energy Finance

나. 중국

□ 2013년 이후 태양광 수요가 급증한 중국은 2015년 약 15GW 수요가 생겨날 전망

- 올해 열린 중국 전인대 핵심은 환경보호 문제가 이슈화됨.
-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발전에 대한 보급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친환경 발전의 중심에 태양광 발전이 있음.
-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 태양광시장은 2015년 15GW를 시작으로 2016년 17GW, 2017년 20GW로 확대될 전망
-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은행들은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며,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펀딩 및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금융상품 출시가 본격화 될 전망
- 2015년 중국 최초로 자산유동화 증권도 발행될 예정으로, 금융 활성화를 통한 태양광산업 지원이 활발해 질 전망

<중국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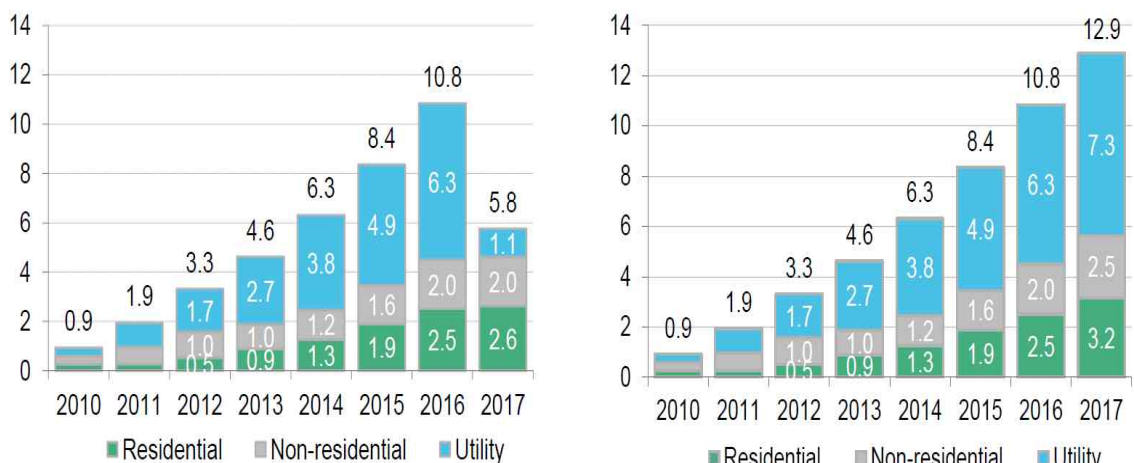
다. 미국

□ 2015년 미국 태양광시장은 8GW를 넘어서는 호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10GW를 넘어설 전망

- 셰일가스 붐은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와 더불어 미국 전력시스템을 청정한 구조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과거 100년간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시스템은 서서히 한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시대적 요구와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
- 올해 미국 태양광시장은 2014년 대비 30% 이상할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도 20% 이상 성장할 전망
- 2017년은 세금공제제도(ITC) 만료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태양광 설비에 대한 세금공제율이 30%에서 10%로 삭감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경제성 악화 문제로 태양광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존재
 - 제도 연장에 대한 논의는 2015년 이후 본격화될 예정으로 만약 제도 연장이 될 경우 미국 태양광시장 규모는 12GW를 넘어설 전망

<미국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G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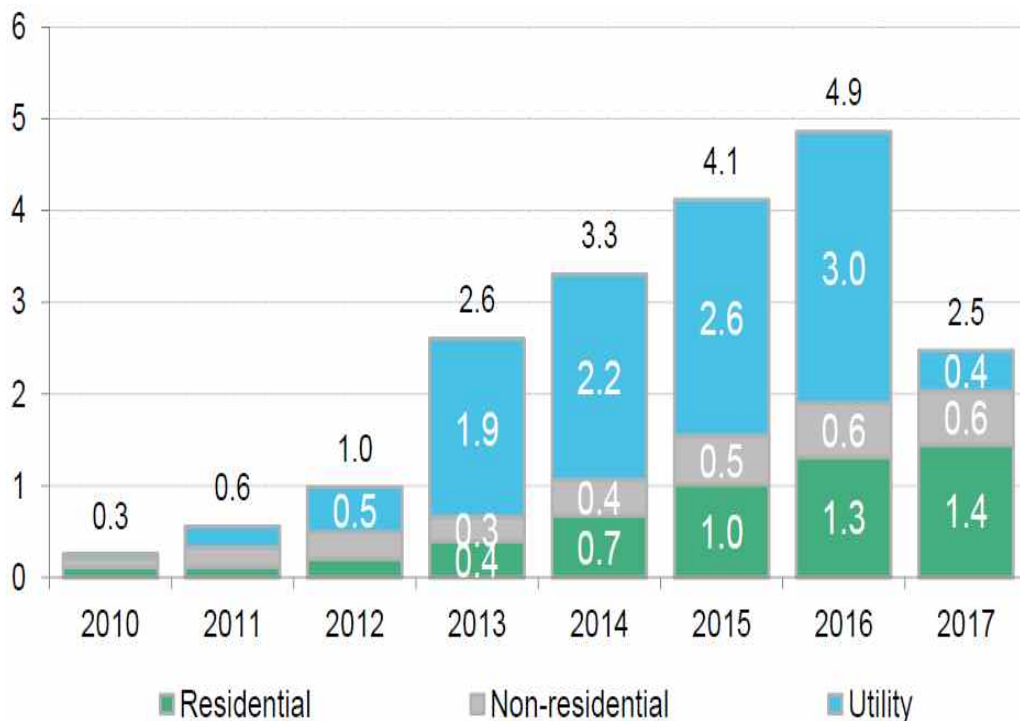
자료 : New Energy Finance

□ 미국 최대 태양광시장인 캘리포니아는 2015년 4GW 이상의 신규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

- 캘리포니아는 2014년까지 설치량 8.5GW, 발전량 11.3TWh로 미국 태양광 수요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
- 캘리포니아는 발전사들의 RPS¹⁾를 2030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RPS 관련 수요만 3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가정용 태양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Net-Metering²⁾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지역은 그리드패러티에 도달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가정용 태양광 보급 확대에 의해 소매전기 시장에서 태양광 비중이 2015년 6%를 넘어섰으며, 2017년 12%까지 증가할 전망

<미국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G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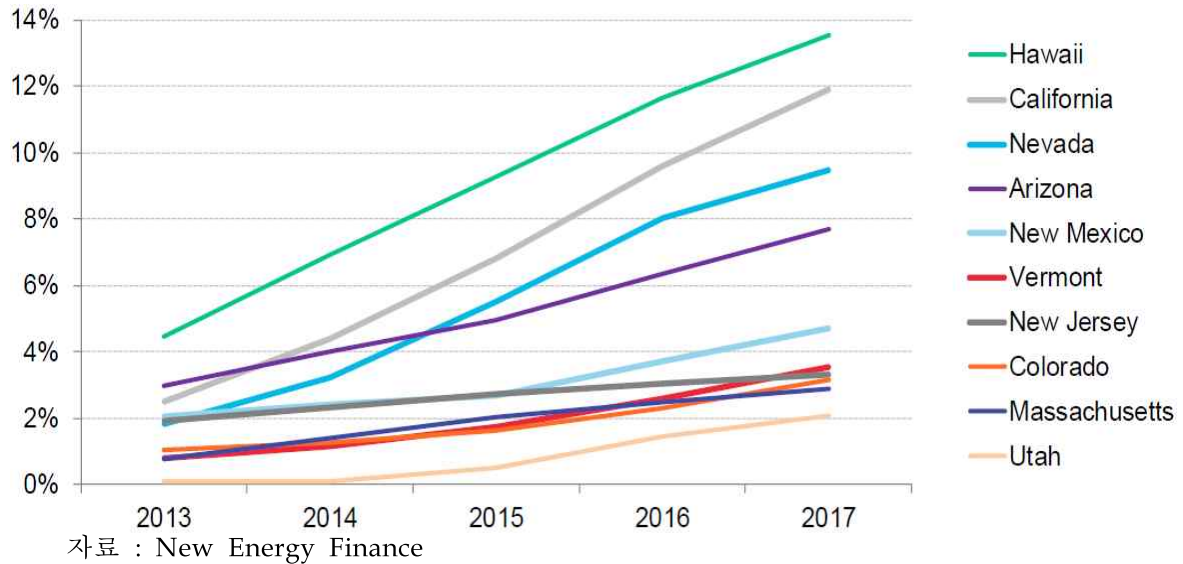
자료 : New Energy Finance

1)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비율

2) Net Metering : 가정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에게 되파는 제도

<미국 소매전기 시장에서 태양광 전기 판매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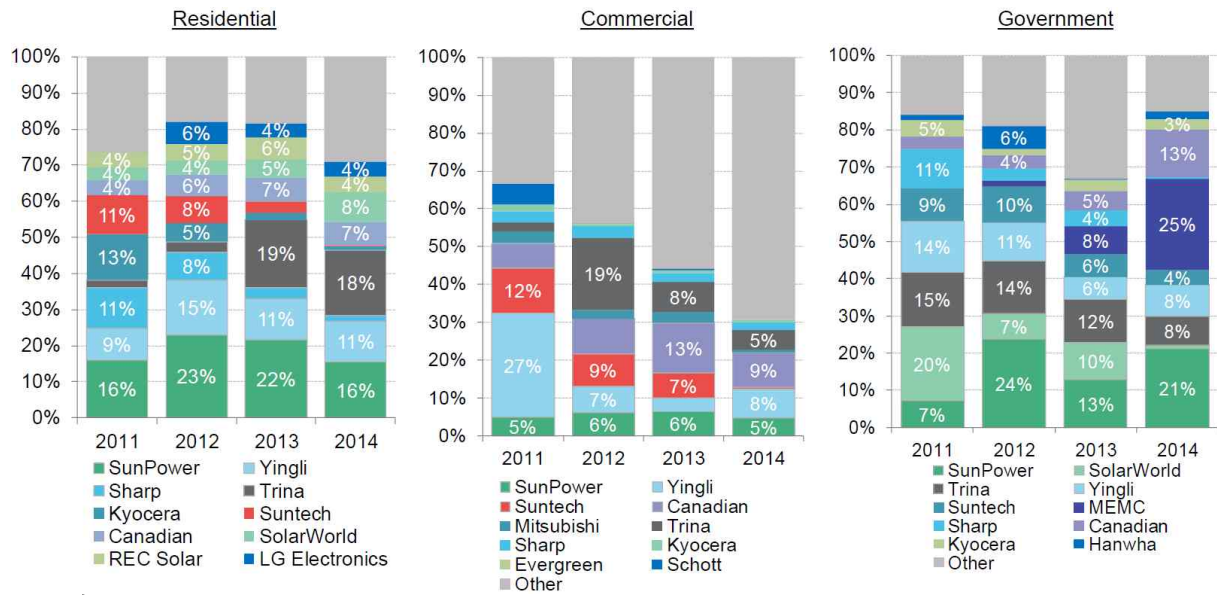
(단위 : GW)



□ 중국 태양광 모듈 제품에 대한 반덤핑 과세가 부과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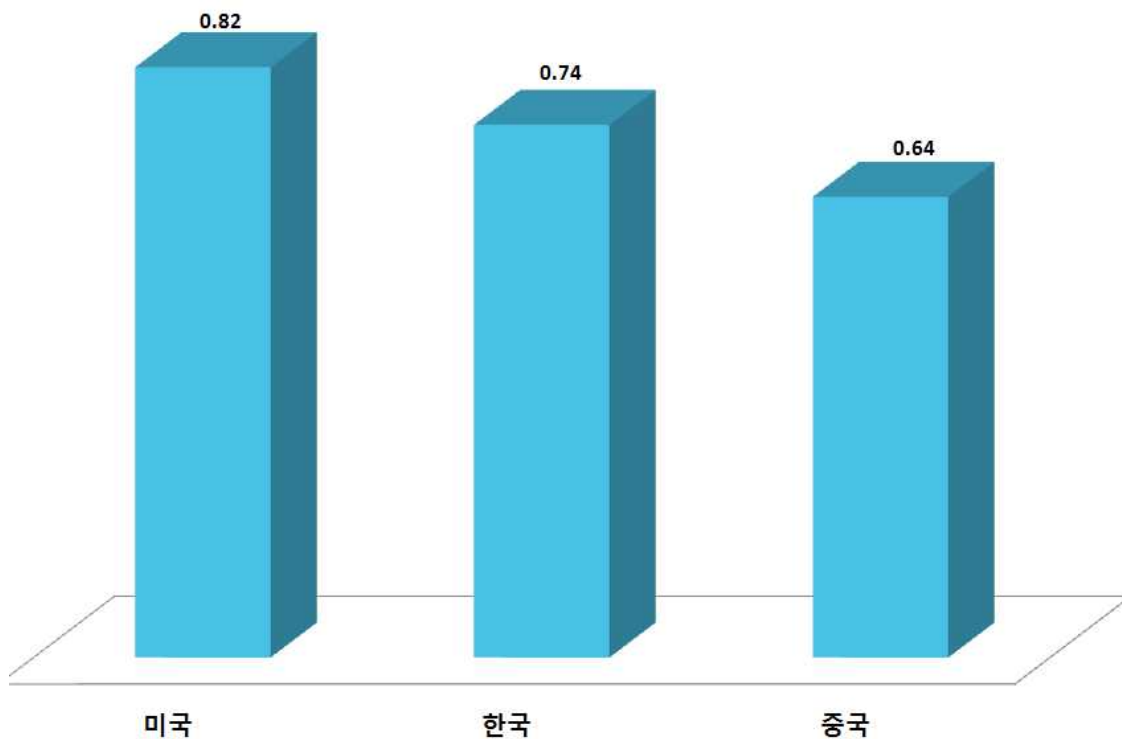
- 2012년 31% 반덤핑 과세가 중국 모듈 제품에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들어 과세율이 15% 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반덤핑 과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2015년 5월에 최종 부과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태양광 사업개발 기업들은 중국산 모듈에 대한 반덤핑 과세로 사업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
 - 미국 자국산 제품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 부과와 사업개발 기업들의 이익률 하락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품은 미국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
 - 반덤핑 과세 논의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제품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
 - 반덤핑 과세로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10~15% 가격 격차는 유지되고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 태양광 모듈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현황>



<미국 반덤핑 관세 부과 후 모듈 가격 비교>

(단위 :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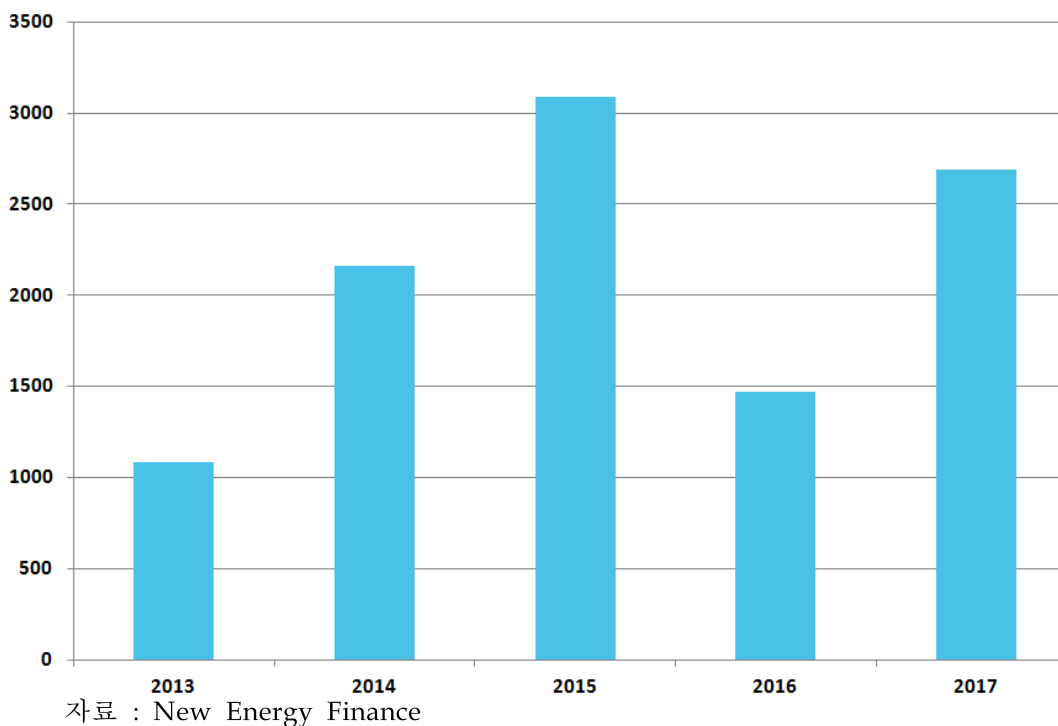
라. 영국

□ 유럽 태양광 수요 중심이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양광 육성 정책에 힘입어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동

- 2014년 영국 태양광 설치량은 2.1GW로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40% 이상 증가할 전망
- 5MW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5월 기준으로 1.4ROC³⁾(Renewables Obligation Certificate)에서 1.3ROC/MWh으로 변경될 예정
- 현재 건설 예정인 태양광 프로젝트 물량은 3.5GW이며, 보조금 변경 전 건설 수요가 집중될 예정

<영국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MW)



3) ROC(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시간당 생산되는 전기량을 나타내는 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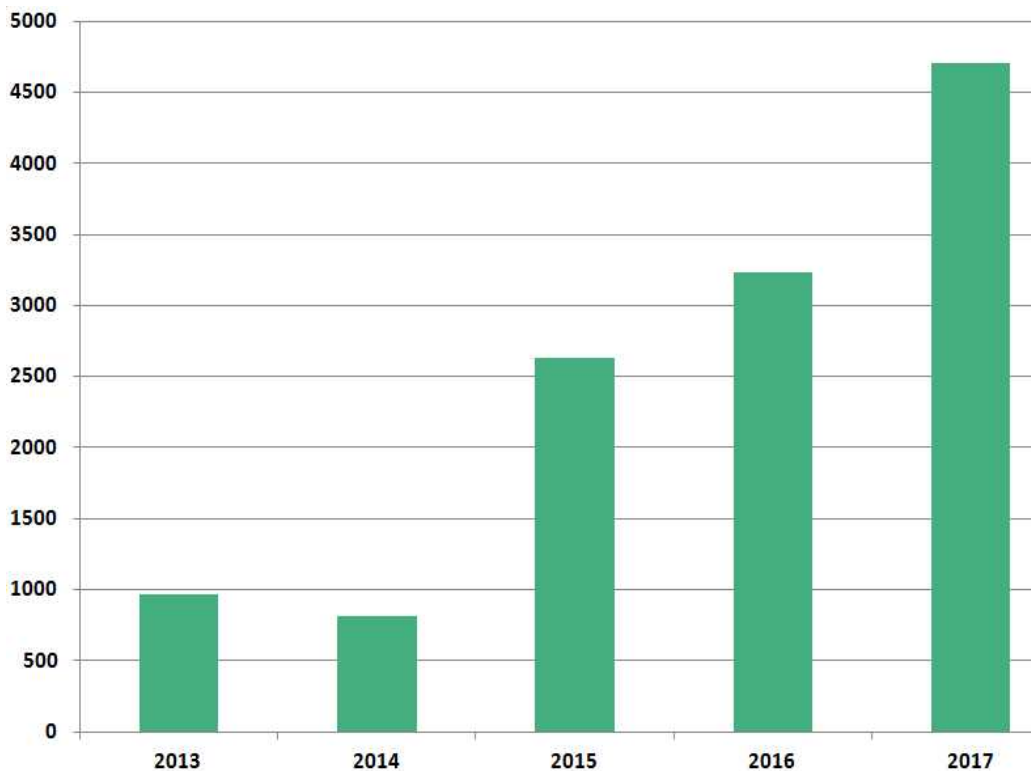
라. 인도

□ 2015년 인도 태양광시장은 전년대비 200% 이상 성장한 2.6GW가 성장할 전망

-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10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Solar Mission 프로그램을 통해 3GW 규모의 태양광 경매를 실시할 예정
- 풍부한 태양광 자원을 바탕으로 인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늘려나갈 예정

<인도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MW)



자료 : New Energy Finance

II.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1. 폴리실리콘

□ 폴리실리콘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으로 태양광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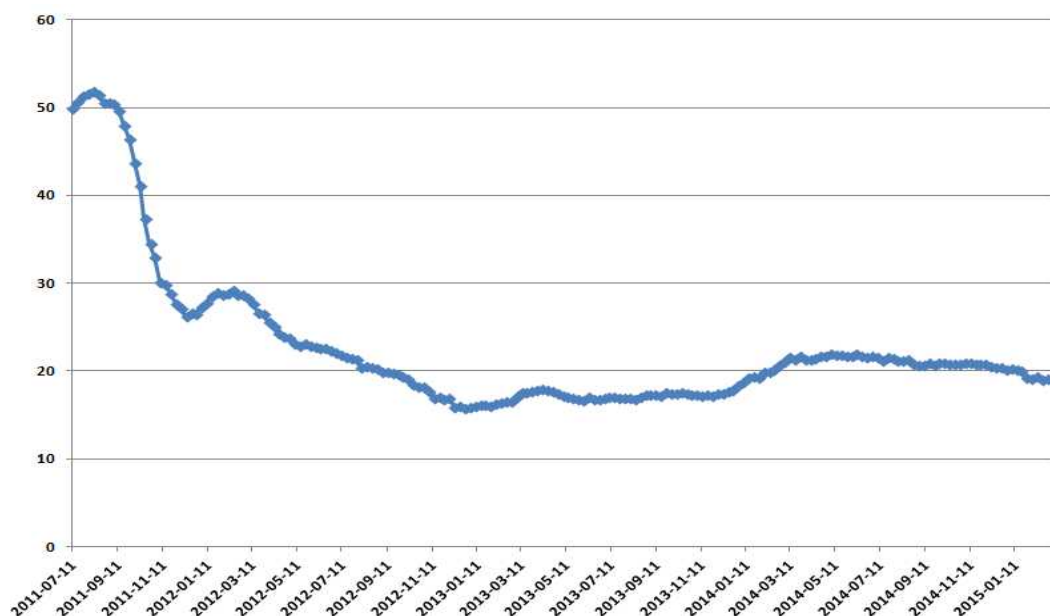
- Hemlock사 10,000톤, Tokuyama사 6,200톤 규모가 폴리실리콘 생산이 중단 또는 지연됐으나, 현재 폴리실리콘 생산용량은 350,000톤을 상회
- 폴리실리콘 수요량은 55GW를 기준으로 약 260,000톤이며, 여기에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수요 30,000톤을 포함할 경우 2015년 예상 폴리실리콘 수요량은 290,000톤
- 2015년 약 60,000톤 가량의 폴리실리콘이 공급과잉될 것으로 예상됨.

□ 폴리실리콘 가격밴드는 \$15~20/kg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

-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은 충분한 상황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은 상향보다는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됨.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

(단위 : \$/kg)



자료 : PV Insight

□ 폴리실리콘 기업들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폴리실리콘 제조단가는 꾸준히 하락할 전망

- Wacker와 OCI사는 기존 생산설비를 Debottlenecking⁴⁾을 통하여 대규모 설비투자 없이 생산량 증대에 나서고 있음.
 - Debottlenecking은 신규 공장 건설이 생산용량을 늘릴 수 있고 투자비가 공장건설 대비 저렴한 장점이 있음.
 - Wacker사는 Debottlenecking을 통해 기존 설비를 52,000톤에서 60,000톤으로 증설할 예정이며, OCI사도 42,000톤에서 52,000톤 증설할 예정
- 기존의 노후한 설비를 최신 설비 교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China Silicon의 경우 기존의 노후화된 반응기 교체를 통해 생산성을 50% 증가시킴.
-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iemens 공법 대신 FBR방식 등의 신공정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음.
 - FBR 방식을 사용하면 기존 Siemens 방식 대비 50% 정도 생산단가를 낮춰 \$10/kg 수준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이 가능
 - GCL사 12,000톤, SunEdison사 13,500톤 규모의 FBR 방식으로 생산할 예정
- 폴리실리콘 생산원가 중 30% 이상 차지하는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곳으로 생산설비를 이전 또는 건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중국 DAQO사는 전기료가 저렴한 신장 지역으로 6,0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설비를 이전하였으며, Tokuyama사는 13,5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장을 말레이시아에 건설

4) Debottlenecking : 체증 현상을 일으키는 병목(bottleneck)을 찾아내 풀어줌으로써 전체 공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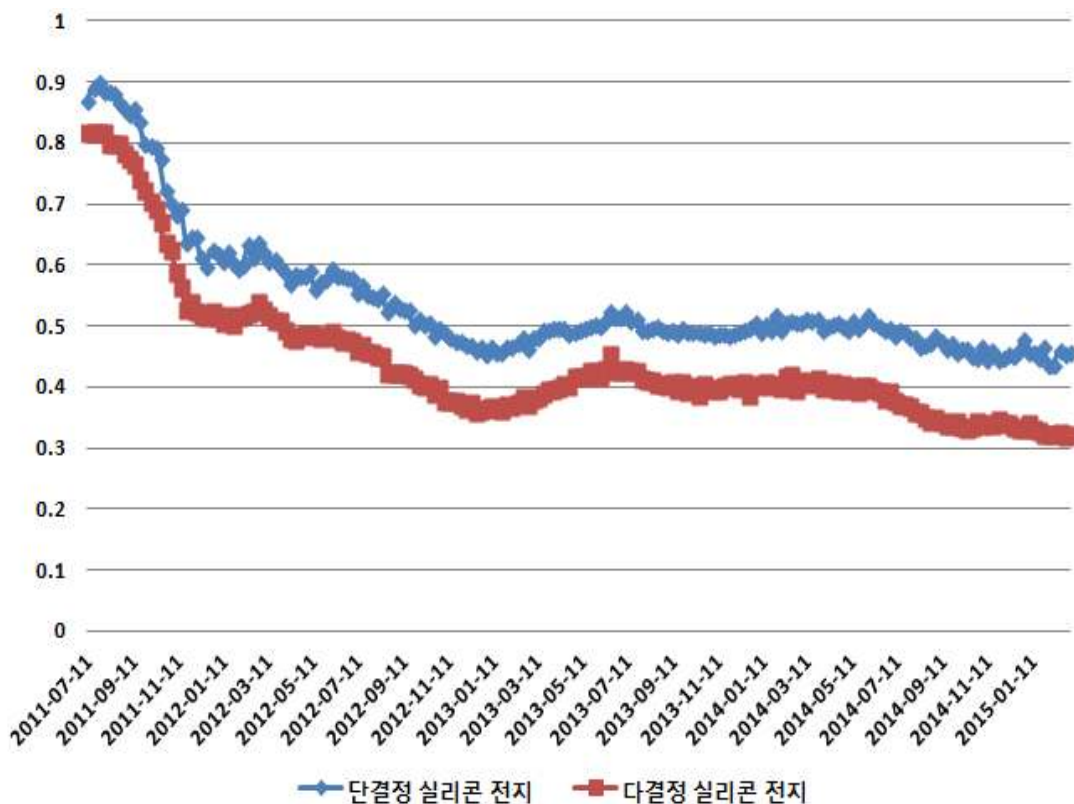
2. 태양전지

□ 2015년 3월 기준 실리콘 태양전지 가격은 \$0.45/W, 다결정 \$0.32/W를 기록 중

- 태양전지 가격은 대량생산과 기술개발로 인해 추세적으로 하락 중
- 2015년 1~3월 태양전지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며, 가격 하락 속도는 2014년 대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 태양전지 공급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으며, 중국의 추가적인 증설에 나설 경우 공급 상황은 급변할 수 있음.
 - 중국은 웨이퍼 58GW, 태양전지 63GW의 생산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75% 이상이 가동 중에 있음.
 - 현재 5~10GW 이상의 태양전지가 공급과잉인 상황이나, 중국 선도기업들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중국 기업들의 증설 계획을 살펴보면 웨이퍼의 경우 GCL사 3GW, Longi 1GW이며, 태양전지는 JA Solar사 560MW, Jinko Solar 400~500MW, China Sunergy 100MW를 증설할 예정
- 중국 태양전지 기업들은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증설을 단행할 예정
- 태양전지 분야 이슈 중 하나는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점유율 확대 부분임.
 -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가 가격적 장점을 바탕으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지붕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가격적으로 다결정 실리콘 전지가 30% 정도 우위를 가지고 있어, 점유율 격차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와 단결정 태양전지 비중이 75:25 수준

<태양전지 가격 동향>

(단위 : \$/W)



자료 : PV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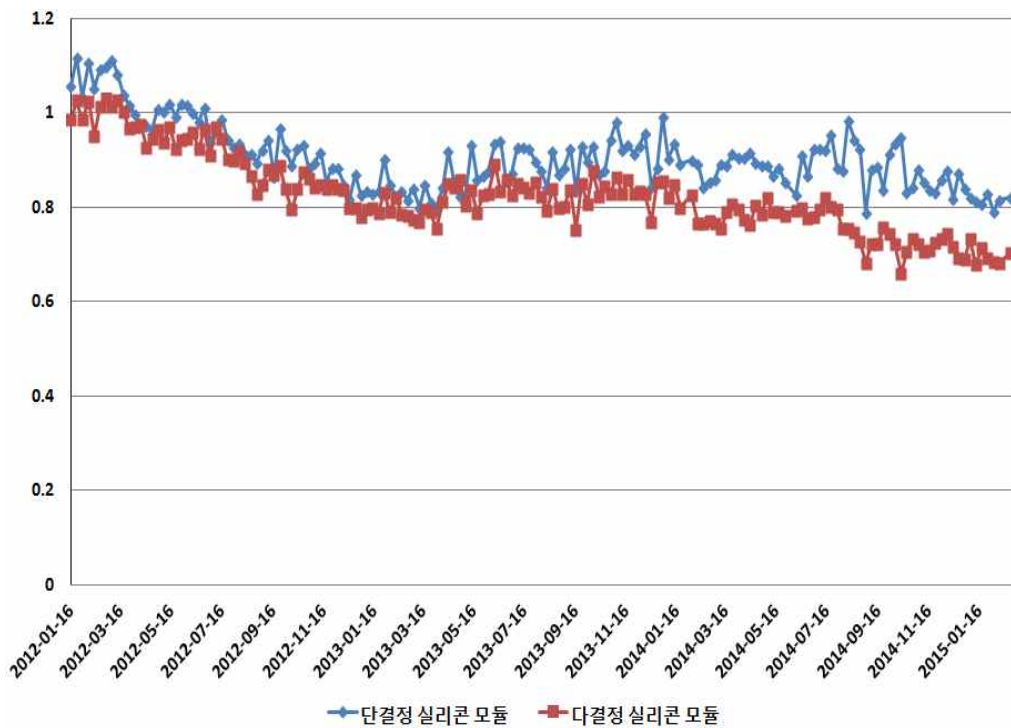
3. 태양광 모듈

□ 2014년 말 기준 실리콘 태양광 모듈 생산용량은 70GW이며, 이 중 80%의 생산설비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음.

- 설비 효율화 및 대량생산을 통해 모듈 제조단가는 꾸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태양광 모듈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전망
- 2015년 3월 기준 단결정 실리콘 모듈 \$0.82/W, 다결정 실리콘 모듈 \$0.70/W로 전년 대비 12%씩 하락함.
-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은 설비 증설에 나설 예정이며, 2015년에도 10GW 이상의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모듈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은 60%에 머물고 있으나, 중국 선도 모듈기업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용량을 증설할 예정

<태양광 모듈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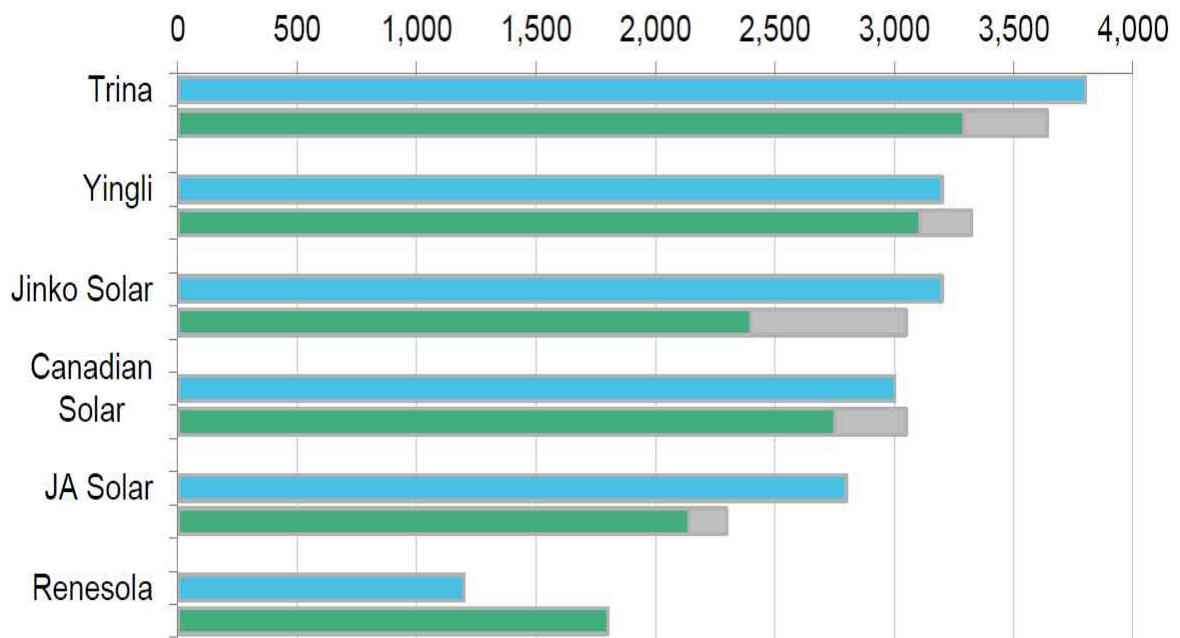
(단위 : \$/W)



자료 : PV Insight

<2014년 3분기 기준 중국 주요 태양광 모듈 기업들의 생산용량 및 선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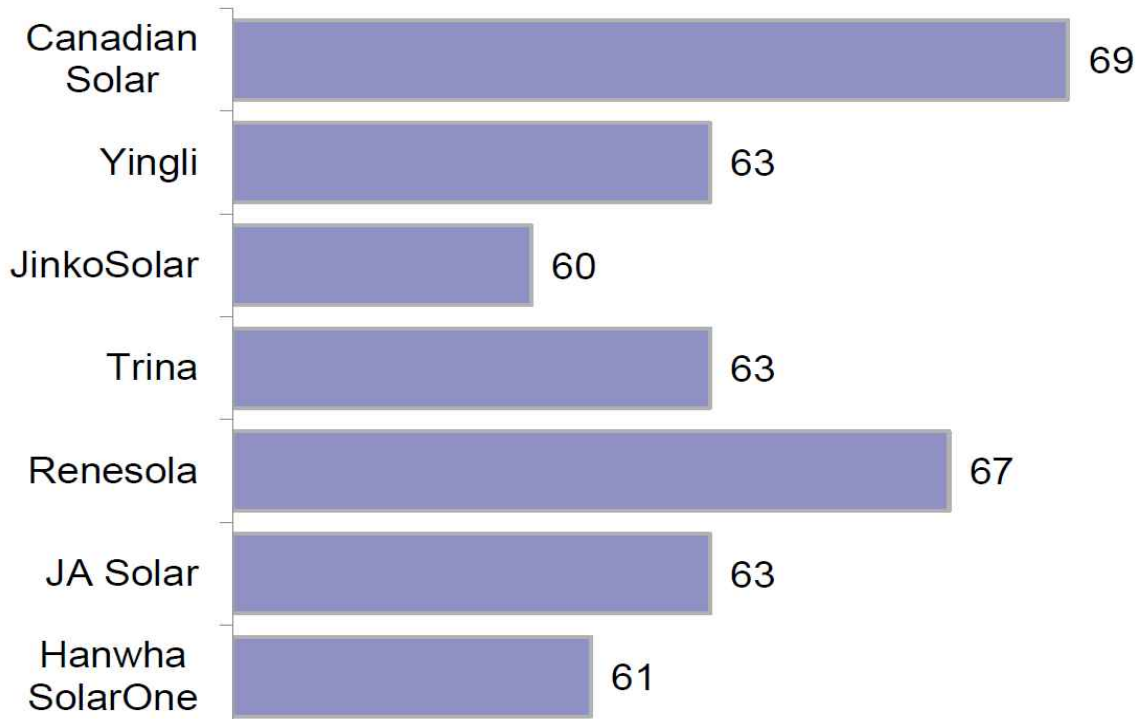
(단위 : MW)



자료 : New Energy Finance

<2014년 3분기 기준 중국 주요 태양광 모듈 기업들의 생산단가 현황>

(단위 : cent/W)



자료 : New Energy Finance

III. 태양광 주요 기업 실적 동향

□ 2013년까지 매출 및 영업실적이 악화됐던 태양광 기업들의 2014년 실적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태양광 선도 모듈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2014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매출 증가율이 크게 개선됨.

-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선도 태양광 모듈 기업들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남.

- Canadian Solar사의 거의 전년 대비 매출이 78% 증가했으며, Trina사도 29% 증가

○ 특히 선도기업들의 영업이익도 가격경쟁력 개선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

- Canadian Solar사의 2014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82% 증가한 3.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Trina사의 경우 2013년 0.37억 달러 적자에서 1.2억 달러 흑자 전환됨.

□ 2015년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가속화될 전망

- 2015년 세계 태양광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인해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은 2014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1분기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매출 및 이익 개선 효과는 가격경쟁력 및 마케팅 능력이 우수한 선도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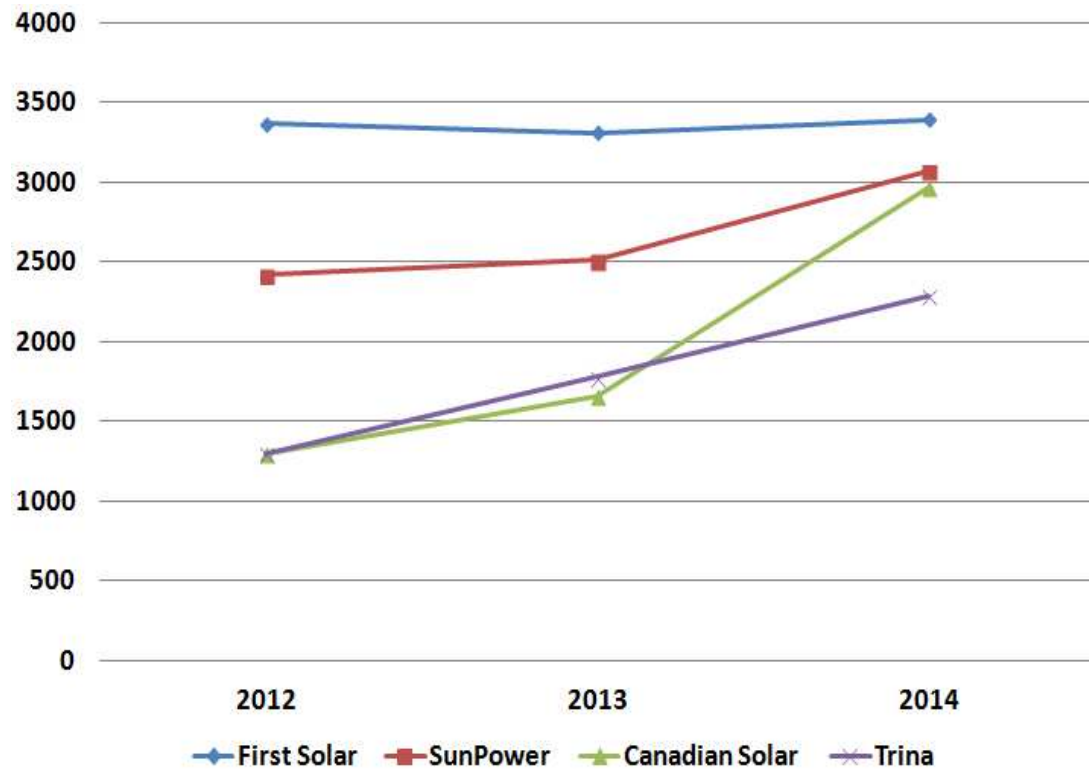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년 합계		2014 1Q		2014 2Q		2014 3Q		2014 4Q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First Solar	3,309	679	3,391	441	950	139	544	19	889	84	1,008	199
Canadian Solar	1,654	130	2,960	367	466	27	624	68	914	156	956	116
Trina	1,775	-36	2,285	120	445	38	519	16	616	36	705	30
SunPower	2,507	158	3,067	263	692	72	507	6	704	22	1,164	163
JA Solar	1,187	-15	1,824	107.5	366	26	390	14.5	492	31	57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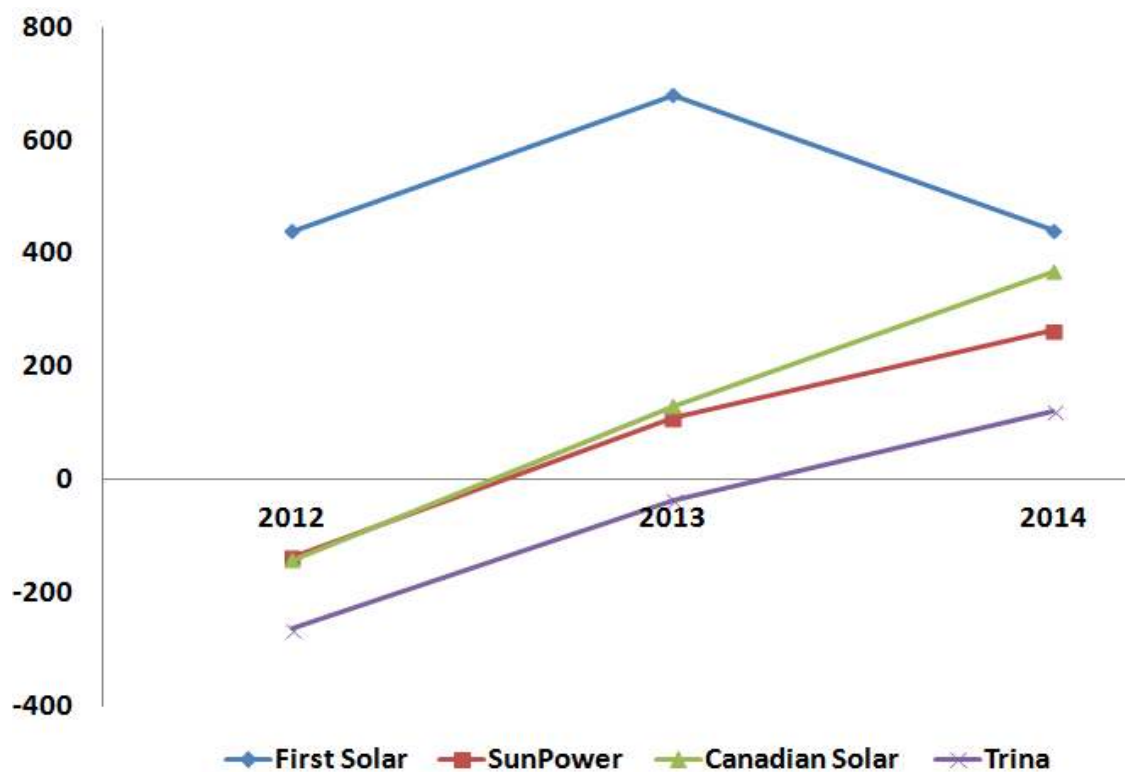
<연도별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매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별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영업이익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IV. 시사점 및 결론

□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은 시작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산업의 역할 및 위치는 더욱더 공고해 질 전망

- 2014년 하반기 불어닥친 저유가 상황으로 세계 태양광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태양광 발전은 기술에너지로 그 역할이 확고해지고 있으며, 기술발전과 대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경제성은 개선될 전망
 - 2010년 \$3.4/W 달했던 태양광 시스템 가격이 2015년 절반이하인 \$1.5/W로 하락했으며, 2020년까지 2015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1.0/W를 달성할 전망
 - 2020년 태양광 발전단가는 9cent/kWh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세계 모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화석에너지 시스템에서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인프라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3년 기준 유럽의 신규 발전소 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풍력 10.8GW, 태양광 10GW가 신규로 설치되었는데 반해 석탄발전 5.8GW, 가스발전 2.6GW가 폐쇄됨.
 - 미국 역시 석탄 발전소의 기한 연장과 신규 허가를 불허하고 있어, 화석 발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듦 전망
 - 유럽 및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음.
- 본격화될 기후변화 이슈도 태양광산업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新기후변화 체제는 과거 교토체제와는 다른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큰 한해가 될 전망

- 2015년 세계 태양광 수요범위는 52GW~58GW가 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일본 및 미국 수요가 예상보다 강해 태양광 수요는 55GW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강력한 환경보호법 시행이 태양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역시 승인된 태양광 프로젝트가 보조금 삭감 전 건설될 전망
 - 미국 역시 애플의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계획 발표 등 태양광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태양광 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2015년 긍정적인 시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차별화 양상을 보일 전망

-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매출과 이익개선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
- 가격경쟁력과 다운스트림 분야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후발기업들과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전망
- 태양광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 질 전망